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4-9] 인문 통합

사물의 실재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

지문 평가

(가)에서는 '로크'와 '버클리'의 철학을 비교하고 (나)에서는 '주자'와 '왕양명'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가)와 (나)를 다시 비교해야 하는 통합 지문이다. 관점 요소가 이리저리 전환되며 전개되니,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독해하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서양 철학 - 인식론, 존재론

사물, 감각 경험, 표상적 실재론, 버클리, 관념론, 회의주의, 신

(나) 인문 - 동양 철학 - 신유학

왕양명, 심즉리, 심외무물, 주자, 성즉리, 격물치지, 정리, 조리, 양지, 치양지, 지행합일

(가)로단 1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

1) 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외부의 **사물**이 우리 마음에 일으킨 **감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 **로크**는 ……

▶ **맥락 짚기** 지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로크'의 관점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사물'과 '감각 경험'이라는 개념이 반복되어 사용될 테니 잘 구분하며 독해하자. 예컨대 고양이나 책상 같은 사물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관념이 곧 '감각 경험'에 해당한다.

2) …… 사물과 우리 마음의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원론인 **표상적 실재론**을 주장하였다.

▶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물질인 외부의 사물과 정신인 마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즉 로크는 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원론을 주장한 셈이다.

3) 로크에 따르면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 경험', 즉 '표상으로서의 관념'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므로 **관념은 외부 사물이 마음에 일으킨 것임에 틀림없다**.

▶ 일단 로크의 관점에 따라 '감각 경험 = 표상으로서의 관념'이라고 개념을 연결해 주자. 이러한 감각 경험 → 외부 사물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에 외부 사물 그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주목** 그렇다고 해서 '감각 경험'이 '외부 사물'과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니다. 관념은 제멋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가)로단 2 버클리의 관념론

1) 이와 관련하여 **버클리**는 감각 경험을 통한 앎을 강조한 경험론자임에도, ……

▶ '버클리'의 관점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감각 경험을 통한 앎을 강조하는 건 문단의 로크와 유사한데 ……

2) …… 세계는 오로지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유심론인 **관념론**을 주장하였다.

▶ 세계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건, 정신이 아닌 외부 사물은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이 부분이 '로크'와의 분명한 차이점이겠다.

3) 로크는 '실재하는 외부 사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가정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감각 경험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전자의 가정을 참으로 간주하는데, ……

▶ **맥락 짚기** 버클리가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을 비판하기 위해 로크의 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 외부 사물이 실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감각 경험을 일으킨다는 것은 앞서 살핀 로크의 관점 그대로다[문단1-1].

- 전제 1 :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감각 경험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 전제 2 : 이러한 사실은 '실재하는 외부 사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가정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 결론 : 따라서 '실재하는 외부 사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가정은 참이다.

▶ **참고** 위와 같은 논증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논증 형식에 속한다.

- 전제 1 : Q는 사실이다.
- 전제 2 : 가정 P가 사실 Q를 잘 설명한다.
- 결론 : 따라서 가정 P는 참이다.

4) …… 버클리는 이러한 로크의 입장이 결국 우리가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회의주의**로 귀착된다고 비판한다. 물질인 외부 사물과, 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자로서 정신인 마음 간의 인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 외부 사물의 실재성은 감각 경험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표상적 실재론은 결국 외부 사물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회의주의에 이른다는 것이다.

▶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버클리의 반박이다. '실재하는 외부 사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없는데, 마음 밖의 물질과 마음 안의 정신 사이의 인과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외부 사물'과 '관념'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자라서, 둘 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버클리의 주장이다.

▶ 가령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 고양이가 외부에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양이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 간의 인과를 설명할 수 없는 한, 고양이가 외부에 존재한다는 가정이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버클리는 로크의 관점이 **회의주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 외부 사물의 실재성은 증명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마음 밖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거다.

(가)로단 3 관념론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1) 버클리의 관념론은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이다.'라는 주장, 즉 지각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집약되어 있다. 이 주장은 일견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부에 실재한다고 믿는 우리 앞의 돌, 나무와 같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 버클리의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마음 안에만 있

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고양이나 책상처럼 마음 밖에 있는 외부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 2)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는 달리 마음 바깥에 있지 않고 관념들의 다발로서 마음 안에 존재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 때문에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으로 인한] 회의주의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 헛갈리기 쉬운 내용이니 집중하자. 버클리에 따르면 고양이나 책상 같은 사물은 분명히 존재한다. 단 외부 사물로서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념들로서 그것을 지각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

❗ **주목**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외부[→ 마음 밖의] 사물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마음 밖의 물질과 마음 안의 정신 간의 인과를 설명할 이유도 없어진다. 즉 표상적 실재론처럼 회의주의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 3) 물론 버클리의 관념론은 회의주의의 극복이라는 성과의 대가로 우리가 지닌 다른 상식을 부정해야 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버클리에 따르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방을 나온 후에는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방 안의 책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상식에 위배]

➡ 버클리의 관념론에 대한 반박이다. 버클리에 따르면, 방 안의 책상은 지각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물은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어긋나는 지점이다.

- 4) 버클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인 **신(神)**을 세계에 도입함으로써 이를 설명한다. 신은 우리에게 의해 지각되지 않는 사물들을 쉽게 지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두므로 [인간이 지각하지 않더라도] 방 안의 책상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 3)에 대한 버클리의 재반박이다. 우리가 책상을 지각하지 않을 때에도 '신'이 그것을 지각하므로 책상은 신의 마음속에 계속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 여기까지,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과 버클리의 관념론을 키워드 중심으로 대조하며 마무리하자.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	버클리의 관념론
• 감각 경험을 통한 앎 중시 • 사물과 마음의 상호 독립성 • 사물은 마음 밖에 실재 • 회의주의에 이를 위험	• 감각 경험을 통한 앎 중시 • 세계는 정신으로만 구성 • 사물은 마음 안에 존재 • 상식에 위배될 위험

❗ **참고** 철학에 '신'이 등장하여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버클리는 성교회 주교로서 기독교 사상을 자신의 철학에 반영한 인물이다.

(나)문단 1 왕양명의 심즉리와 주자의 성즉리

- 1) 서양 철학에서 버클리가 '지각된 것'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게, 동양 철학에서 사물의 독립적 실재를 부정한 학자로는 **왕양명**이 있다.

➡ '왕양명'의 관점을 (가)의 버클리의 관념론과 비교하고 있다. 앞서 확인했던 버클리의 주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상기하고 넘어가자.

- 2) 왕양명은 인간의 마음과 그것의 본성인 '이(理)'를 구별하지 않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

➡ 이제선 익숙하겠지만 '이(理)'는 동양 철학에서 특히나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이치나 원리 등을 가리킨다. 왕양명은 '심즉리'를 통해 '인간의 마음=마음의 본성=이(理)'라고 본 거다. 마음과 그 본성이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 3) ……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는 **'심외무물(心外無物)'**도 주장한다.
➡ 이 부분은 버클리의 관념론과 상당히 유사하다[(가)의 문단3-1)]. '심외무물'에 따르면 버클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물은 마음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 있다.

- 4) 이는 인간의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의 상호 독립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마음과 그것의 본성도 구분하는 **(주자)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주자에 따르면 마음의 본성은 자연 세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이'이므로, 곧 **'성즉리(性卽理)'**이다.

➡ 왕양명과 대립하는 '주자'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상호 독립성]. 즉 마음 바깥에도 사물이 존재한다는 거다. 이 대목의 설명은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과 상당히 유사하다[(가)의 문단-2)].

❗ **주목** 주자는 '성즉리'를 통해 '자연 세계의 본성=마음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2)의 '심즉리'와 비교할 때 마음의 본성=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나)문단 2 심외무물에 대한 해석

- 1) 왕양명은 사물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으로 파악되며 그 변화하는 모습이 마음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 사물은 마음 바깥에 있을 수 없고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았다.

➡ 왕양명의 입장에서 본 '사물'의 속성이다. 우리가 아는 고양이는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외부 자연 세계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심외무물'이라는 거대문단-3)].

- 2) 왕양명에 따르면 '물'[→ 사물]은 결국 버클리가 말하는 '지각된 것'과 유사하다. '심외무물'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으나, 사물은 결코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이다. 마음속에서만 사물이 존재 의미를 갖고 사물의 이치도 마음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직접적으로 왕양명의 '심외무물'과 (가)의 버클리의 관념론을 연결해 주고 있다. 단 이는 왕양명의 관점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라는 점 짚어 두자.

(나)문단 3 격물치지에 대한 관점 차이

- 1) 주자와 왕양명의 관점 차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이어진다.

➡ 이번에는 '격물치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주자와 왕양명을 대조하려고 한다. 둘의 차이점을 차근차근 짚어 보자.

❗ **참고** '격물치지'는 「대학」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사물의 이치와 관련된 '격물',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치지'로 이루어진다.

- 2) **(주자)**는 **'격물'**을 바깥의 자연 세계와 사물에서 그것의 본성이자 이치인 '이'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의 '이'는 인간의 마음에 본성으로 자리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자에 따르면 사물에 나아가 궁구(=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함)하여 도덕적 이치[→ 이]까지 깨달을 수 있다.

➡ 먼저 주자의 관점에서 본 '격물'이다. 주자의 '성즉리'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본성=마음의 본성=이'라고 했다[문단-4)]. 따라서 자연 세계의 사물을 연구하면 도덕적 이치인 '이'까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 이때 주자는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의 상호 독립성을 인정했음을 떠올리자. 결국 주자의 '격물'은 마음 바깥의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다.

- 3) 반면 **(왕양명)**에 따르면 '격물'은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사물은 마음 안에 있으므로[→ 심외무물] 사물의 이치를 오로지 마음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는 변화하는 사물이 있으

므로 '격'은 고정된 이치인 **정리(定理)**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치인 **조리(條理)**를 창출하는 것이다.

- ▶ 이번엔 왕양명의 관점에서 본 '격물'이다. 왕양명에 따르면 사물은 이미 마음 안에 존재하는 만큼, 격물도 이처럼 마음 안에 있는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 ▶ 이때 마음 안의 사물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마다 달라지는 '조리'를 창출해야 한다.

4) 이러한 [조리를 창출하는] 역할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만물을 관통하는 근원적 원리이자 마음의 주인인 **양지(良知)**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천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기준을 갖고 있는 양지가 어떻게 조리를 창출하는 것이 **치양지(致良知)**이다.

- ▶ 왕양명이 격물과 관련해 강조한 추가적인 개념들이다. '양지'는 조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조리를 창출하는 것이 곧 '치양지'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격물 = 마음 안의 사물을 바로잡는 것
= 양지를 통해 조리를 창출하는 것
= 치양지

❗ **주목** 이때 양지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선천적 도덕 기준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즉 누구나 타고난 양지를 통해 '치양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L)로단 4 지행합일에 대한 관점 차이

- 도덕적 실천과 관련하여 주자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에 걸맞게 행하는 것이지만, ...
▶ 이번에는 '지행합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주자와 왕양명을 대조하고 있다. 먼저 주자의 지행합일은 구분이 명확하다. 즉 깨달음과 실천은 서로 다르며, 깨달음이 먼저고 실천은 그다음이다[→ 깨달음 없이는 실천도 없다].
- 왕양명에게 있어 지행합일은 깨우침과 실천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뜻으로 '치양지'를 이루는 것이다. 왕양명의 실천 원리 역시 결국 사물이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반면 '왕양명'의 지행합일은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다. 깨달음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이 격물이고 동시에 '치양지'인 셈이다 [문단3-4]. 이와 같은 치양지에 대한 강조는 결국 사물이 마음에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 여기까지, 주자와 왕양명의 관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대조하며 마무리하자.

주자	왕양명
- 성즉리 -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 구분 -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과 유사 - 격물 : 바깥의 사물에서 '이'를 깨닫는 것 - 지행합일: 깨달음 다음 실천	- 심즉리 - 마음 안에 사물이 존재(심외무물) - 버클리관념론과 유사 - 격물 : 마음 안의 사물을 바로잡는 것 - 지행합일: 깨달음과 실천은 하나

[10~13] 사회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의 채권 관계 변화

지문 평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되, 연대 채무, 분할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등 각각의 채권 관계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특히 채무자, 채권자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보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 -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 급부, 채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분할 채무, 담보력, 부진정 연대 채무

로단 1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 연대 채무

- 연대 채무**는 동일한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는 채권 관계를 말한다.
▶ '연대 채무'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은 다수의 채무자들이 **동일한**→ 하나의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때 급부란.....
- 급부**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위이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해야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가령 **을**→ 채무자^이 **갑**→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갑**이 **을**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것을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 하는데, 연대 채무는 채무자가 여럿인 것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일 수 있는데, 연대 채무는 그중에서도 채무자가 여럿인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채무자가 여럿인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의 변제, 면제 등으로 채무자들 중 한 채무자의 상황이 변하면 채권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 가령 일부 채무자가 아예 급부를 이행해 버릴 수도 있겠다→ 채무의 변제. 혹은 일부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채무의 면제. 그로 인해 나머지 채무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보는 얘기다.

로단 2 분할 채무와 연대 채무의 차이

- 채무자가 여럿이되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된 채무만을 지는 **분할 채무**와 달리, ...
▶ 연대 채무와 구분해서 이해하자. 연대 채무와 분할 채무 모두 채무자가 여럿이지만, 연대 채무는 각자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가 있는 반면, 분할 채무는 급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채무를 진다.

연대 채무	분할 채무
채무자들이 각자 금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짐	채무자들이 금부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짐

2) …… 연대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한 명에게 금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 '분할 채무'와 구분되는 '연대 채무'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채무자들이 금부 전체에 대한 채무를 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중 아무 한테나 금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3) 연대 채무 계약으로 세 명의 채무자가 총 600만 원을 빌렸을 때, 내부적으로는 1/3씩 부담을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중의 누구든 한 명에게 6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1/3씩 부담을 지고 있더라도'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채무를 1/3씩 균등하게 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의 '분할 채무'와 다를 바가 없을 테니 말이다.

❗ **주목** 그보다는 내부적으로 채무자들끼리 어떤 합의를 했든, 채권자는 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든 금부 전체를 이행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겠다.

➡ 물론 어느 채무자 한 명에 의해 채무 전체가 변제된다면, 나머지 채무자들은 더 이상 금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금부'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문단1-1].

4) 그만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 따라서 '연대 채무'에서는 단 한 명의 채무자만 금부 전체를 이행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

문단 3 부진정 연대 채무

1)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

➡ 문단2-3에 따르면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 계약'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려는 거다.

2) ……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 채무자가 됨으로써 **외적으로** 연대 채무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

➡ '우연히'와 '외적으로'에 주목하자. 즉 이 경우는 '연대 채무'가 아니다. 다만 그와 유사하게 보일 뿐이다.

3) 이는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들이 금부 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흔히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일컬어진다.

➡ '연대 채무'가 애초에 동일한 금부에 대해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문단1-1], '부진정 연대 채무'는 별개의 채무들의 금부가 중첩된 것이라든가.

❗ **맥락 짚기**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예시를 읽어 낼 수 있어야겠다.

4) 가령, 갑이 고용한 운전기사 을이 갑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병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하자. 을은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인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갖게 되며, 갑은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책임'에 따라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갖게 된다.

➡ 이때 갑과 을은 모두 '병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되지만[→ 병에 대한 채무자가 되지만] 그 법률적 원인이 다르다[→ '불법 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즉 '갑이 병에 대해 지는 채무'와 '을이 병에 대해 지는 채무'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5) 이럴 때 갑과 을은 채권자 병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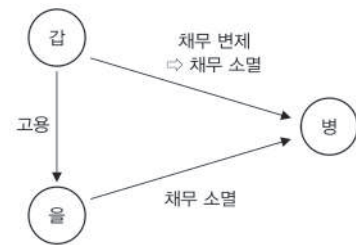
➡ 갑과 을의 채무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나, 우연히 '파손된 병의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이라는 금부 내용이 중첩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는 것이다.

문단 4 부진정 연대 채무와 연대 채무의 차이

1) 이 경우 갑이 먼저 손해 배상 채무를 변제하면 병이 채권자로서 청구할 금부는 더 이상 없으므로[→ 파손된 병의 물건에 대한 손해가 이미 배상되었기 때문에] 을의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맥락 짚기** 문단1-4)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채무자의 상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채권 관계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지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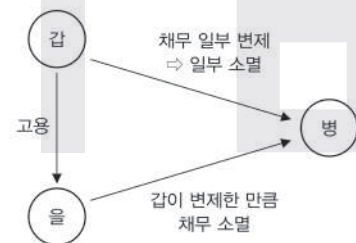
➡ 이때 갑이든 을이든 한 사람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사람의 채무는 그대로 소멸된다. 이는 금부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겠다.



<갑이 먼저 채무를 변제한 경우>

2) 또한 갑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더라도 그만큼의 채무 소멸은 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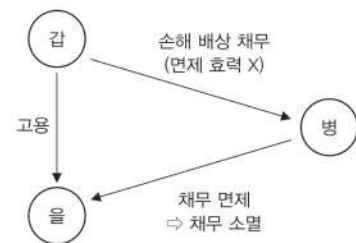
➡ 이렇게 갑[→ 일부 채무자]이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을[→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역시 그만큼 소멸된다. 이는 '금부 내용이 중첩된 것'과 관련이 깊겠다.



<갑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3) 그러나 금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병이 을의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을의 채무를 면제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면 그와는 별개로 발생한 채무인 갑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면제의 경우와 달리, 면제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여전히 갑은 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이 을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4)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채무와 달리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N명의

연대 채무자 중 1명의 채무가 채권자에 의해 면제된다면 1/N에 해당하는 채무는 소멸하고 나머지 채무만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남게 된다.

▶ 반면 연대 채무에서는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문단2-3)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채권자가 채무자 중 한 명의 채무를 면제한다면, 1/3에 해당하는 200만 원은 소멸하고 나머지 400만 원의 채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는 남은 두 명의 채무자들에게 각각 400만 원씩을, 즉 급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
변제	나머지 채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됨 [→ '연대 채무'의 경우는 문단2-3)의 설명 참고]	
면제	나머지 채무자들에게는 영향 없음	나머지 채무자들에게도 영향 있음

문단 5 채무자들의 채무액이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

1)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다른 소액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채무 변제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멸시킨 바 있다.

▶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 '연대 채무'와 달리[→ 이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급부의 내용이 중첩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액이 다를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대해서 나머지 채무자들의 채무를 얼마나 소멸시켜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문단4-2)], 판례에 따르면 '다액 채무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멸'시킨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읽어 보자.

2) 다액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보다 1억 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2억 원을 변제했다면,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액인 1억 원이 먼저 소멸되고, 나머지 1억 원만큼 모든 채무자들의 채무가 소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가령 갑이 3억 원, 을이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전체 급부가 3억 원인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서 다액 채무자인 갑이 2억 원을 변제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① 갑이 변제한 2억 원만큼 동일하게 채무를 소멸할 경우

↓

갑의 채무 1억 원, 을의 채무 0원

▶ 만약 ①과 같이 처리한다면 갑은 애써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을만 좋은 일을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다액 채무자 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채무를 미리 변제할 이유가 없어진다.

② 갑의 채무 1억 원을 먼저 소멸한 후,
남은 1억 원만큼 동일하게 채무를 소멸할 경우

↓

갑의 채무 1억 원, 을의 채무 1억 원

❗ 주목 반면 ②와 같이 처리한다면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 3억 원 중에서 갑만 지고 있는 1억 원의 채무]가 우선적으로 소멸된다. 그 결과로 갑의 채무도 2억 원이 되고, 을의 채무도 2억 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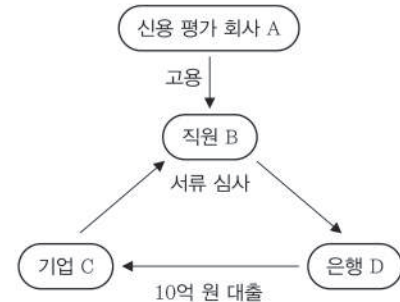
▶ 그리고 나서 남은 1억 원[→ 2억 원 - '우선적으로 소멸한' 1억 원]의 변제가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갑과 을의 채무는 각각 1억 원이 된다.

<보기>문단

1) 신용 평가 회사 A의 직원인 B는 서류를 심사하여 기업 C가 은행 D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D는 C에 대한 A의 신용 평가를 믿고 C에 1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 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 이후 서류 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D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 A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

▶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와 A는 채권자인 D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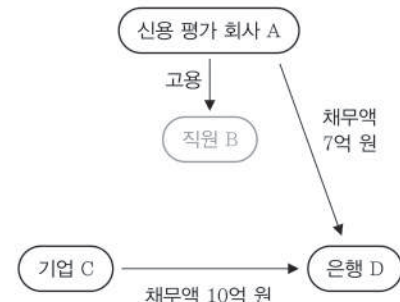
3) 그러나 D의 과실이 30% 인정되어 A는 대출금의 70%에 대해서만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보기>의 상황은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서류 심사를 잘못된 B의 채무액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4) D가 B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아서, B에게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다행히 여기서는 아예 B의 채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B에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오해하지 말자. D가 B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 아니다. B에게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주목 정리하면 C와 A는 D에 대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고 그중에서 C는 '다액 채무자'에 해당한다.

5) 얼마 후 C[→ 다액 채무자]는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다.

▶ <나>의 문단5의 설명에 따르면 이때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액'이 우선적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3억 원이 우선적으로 소멸되고, 그에 따라 A와 C의 채무는

똑같이 7억 원이 된다. 그리고 남은 2억 원[→ 5억 원-3억 원]의 소멸은 모든 채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 C	신용 평가 회사 A
채무액 10억 원 중 5억 원 변제 ↓ 10억 원 중 3억 원 우선 소멸 ↓ 남은 7억 원 중 2억 원 소멸 ↓ 총 5억 원 남음	채무액 7억 원 [→ 다액 채무자가 아니므로 우선 소멸 x] ↓ 7억 원 중 2억 원 소멸 ↓ 총 5억 원 남음



[14~17] 기술

텍스트 마이닝의 임베딩 모델

지문 평가

‘텍스트 마이닝’에 선행되어야 하는 ‘임베딩 모델’에 주력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 ‘원 핫 인코딩’의 한계로부터 ‘워드 투 벡터’가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낼 수 있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과학 - 임베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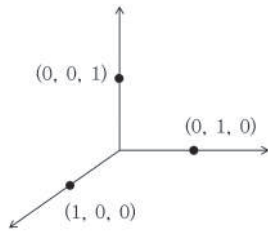
텍스트 마이닝, 임베딩 모델, 다차원 벡터, 원 핫 인코딩, 벡터, 희소 벡터, 워드 투 벡터, 밀집 벡터, 벡터값, 학습, 중심 단어, 인접 단어, 세대, 학습률

문단 1 텍스트 마이닝

- 1) **텍스트 마이닝**은 책이나 인터넷 등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을 모은 후, 그 특징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 ▶ ‘텍스트 마이닝’은 주어진 수많은 문장들로부터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하는 기술이란단.
- 2) 이를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작업을 위해 변환 규칙인 **임베딩 모델**에 따라 단어를 숫자들의 집합인 (a, b, c, ...) 형태의 **다차원 벡터**로 나타내야 한다.
- ① **맥락 짚기**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하려면 먼저 ‘임베딩 모델’에 따른 단어 → 벡터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변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계속 읽어 보자.

문단 2 원 핫 인코딩

- 1) 가장 간단한 임베딩 모델은 0과 1만의 집합으로 단어에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방법인 **원 핫 인코딩**이다. 예컨대 ‘개, 강아지, 고양이’에 이 방법으로 1, 2, 3의 번호를 부여하면 ‘개’는 (1, 0, 0), ‘강아지’는 (0, 1, 0), ‘고양이’는 (0, 0, 1)의 벡터로 변환된다. N개의 단어가 있다면 각 단어는 하나의 요소만 1인 N차원의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다.
- ▶ 단어에 번호를 하나씩 부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단.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요소를 1로 표현하고,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요소를 1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는 얘기겠다.
- ▶ 문단에 따르면 분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이 임베딩 모델에 의해 다차원 벡터로 변환될 텐데, 그렇다면 차원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다.
- 2) 이[→ ‘원 핫 인코딩’에 따라 변환된 벡터]는 단어가 많을수록 차원이 커짐에도 정보를 담지 못하는 **희소 벡터**이다. ‘개’와 ‘강아지’가 의미상 가까움에도 벡터 간 거리가 ‘개’와 ‘고양이’의 경우와 같아서 거리 연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 이렇게 ‘원 핫 인코딩’에 따르면 단어의 수에 비례하여 차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정보를 담을 수가 없단다.
- ① **주목** 애초에 ‘임베딩 모델’을 따라 다차원 벡터를 생성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함**이었다[→ 텍스트 마이닝]. 그러나 ‘원 핫 인코딩’의 경우 벡터 간 거리가 전부 같아서 그 어떤 정보도 담아낼 수가 없다.



문단 3 워드 투 벡터

1)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활용 가치가 높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워드 투 벡터** 방법과 같이 단어 간 유사도를 담은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다.

▶ “우리가 벡터에 담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 ‘벡터 간 거리’를 토대로 각각의 벡터에 대응하는 ‘단어 간 유사도’를 담을 수 있어야만 벡터에 정보가 담겼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원 핫 인코딩’과 달리 ‘워드 투 벡터’는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다.

❶ **백락 짚기** 둘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워드 투 벡터’가 어떻게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2) 이 방법으로 만드는 벡터들은 0, 1을 포함한 모든 실수를 사용하므로 사전에 정해 놓은 작은 차원으로 단어 간 관계를 포함한 여러 정보들을 담은 **밀집 벡터**이다.

▶ ‘원 핫 인코딩’에서는 단어의 개수에 비례하여 차원의 수가 결정된다[문단2]. 그러나 ‘워드 투 벡터’에서는 모든 실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도 차원의 수가 달라질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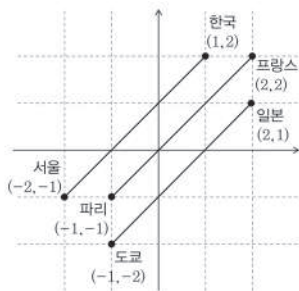
❷ **주목** 이렇게 모든 실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 간의 거리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별 벡터를 통해 ‘단어 간 유사도’ 역시 담을 수 있는 거다.

3) 이 벡터들이 최적의 벡터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왕-남자’로 연산하여 얻은 벡터가 ‘여왕-여자’로 연산하여 얻은 벡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왕-남자+여자=여왕’과 같이 단어 간 관계를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최적의 벡터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왕-남자’는 두 벡터 간의 거리에 대응하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값이 ‘여왕-여자’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따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❸ **주목** ‘왕-남자’ 사이의 관계는 ‘여왕-여자’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는 곧 두 벡터 간의 거리가 같다는 것이, 두 단어 간 관계가 같다는 것과 동치임을 뜻하겠다[→ 벡터 간 거리로 단어 간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하겠다].

▶ 실제로 우리가 각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떠올려 보자. 남자의 경우에는 ‘왕’이 사용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대신 ‘여왕’이 사용된다. ‘왕-남자+여자=여왕’이라는 수식은 이렇게 실제로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와, 단어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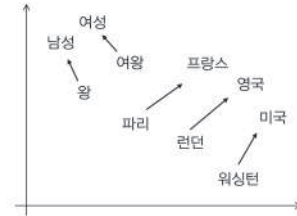


▶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네 번째 문제의 <보기 2>도 함께 보자. 각각 ‘한국-서울’, ‘프랑스-파리’, ‘일본-도쿄’를 연산하여 얻은 벡터가 모두 같다. 이에 해당 벡터들이 최적의 벡터값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이제 어떻게 ‘워드 투 벡터’가 단어 간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지 알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적의 벡터값’에 도달했을 때의 얘기임을 잊지 말자.

4) 이를 위해 ‘남자’와 ‘여자’ 같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벡터 간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최적의 벡터값을 찾아내는 컴퓨터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렇게 최적의 벡터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란단. 학습은 유사한 범주의 단어들의 ‘벡터 간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슷한 단어들끼리 뭉치도록 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5) **학습**은 수많은 문장들을 살펴 인접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밀접하다고 간주하고, 문장 내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같은 범주에 속해서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결국 학습이란 각 단어들을 두고 ‘벡터 간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이겠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벡터 간 거리’를 좁힌다는 거다.

문장 내 자주 인접해 등장하는 단어들 ⇨ 밀접한 관계
문장 내 서로 대체 가능한 단어들 ⇨ 유사한 관계

6)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오렌지를 먹었다.’를 통해 ‘사과’나 ‘오렌지’는 ‘나는’이나 ‘먹었다’와 관계가 밀접하며, ‘사과’와 ‘오렌지’는 유사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문단(1)에 따르면 ‘임베딩 모델’에는 수많은 문장들이 동원된다. 이렇게 기존의 문장을 활용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

문단 4 워드 투 벡터의 학습 과정

1) 워드 투 벡터가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벡터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수많은 문장에서 단어들을 추려 내고 단어마다 무작위 값으로 초기 벡터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❶ **백락 짚기** ‘워드 투 벡터’의 ‘학습’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파악하자.

▶ 일단 단어마다 아무 값을 ‘초기 벡터’로 부여하고 보는 거다. 다만 벡터의 차원은 사전에 정해지는 만큼 일정하다. 하나의 벡터를 이루는 요소들의 값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거다. 어차피 학습을 통해 차근차근 조정될 테니 말이다.

2) 이후 한 문장씩 살펴보고 벡터값을 개선해 가는 학습을 진행한다.

▶ 문단(3-5)에 따라 주어진 문장들을 하나씩 참조하며 해당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벡터값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다.

3) 단어들의 벡터로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확률을 공식에 따라 구할 수 있는데, 학습은 문장에서 **중심 단어**와 **인접 단어**를 확인할 때마다 그 특정한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벡터값들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 문장에서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면 이 두 단어는 인접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밀접한 단계’]. 그에 따라 각 벡터값들을 조정하게 된다.

4) 또한 여러 문장들 내의 위치상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이 단어들은 유사한 것이므로 벡터 간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조정한다.

➡ 문단3-5의 '사과'와 '오렌지'처럼 문장 내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유사한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두 벡터 간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벡터값들을 조정하게 된다.

5) 이런 식으로 주어진 모든 문장에 대해 학습을 완료하면 한 **세대**의 학습이 종료된다. 다음 세대의 학습은 이 상태의 벡터에서 시작하여 모든 문장들을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어진 모든 문장들에 대해 한 차례 학습을 진행한 것을 가리켜 '한 세대'라고 한다. 이렇게 한 세대가 반복될 때마다 모든 문장들을 대상으로 학습 과정이 되풀이되고, 그때마다 단어들의 벡터값도 조금씩 조정될 거다.

6) 학습해야 할 문장이 많을수록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을 반복해야 각 단어에 최적의 벡터값이 부여될 수 있다.

➡ 그렇다. 아무래도 문장이 많을수록 그에 포함된 단어들도 더 다양하고, 단어 간 관계도 더 다양하게 성립하기 때문이겠다.

문단 5 학습률

1) 이 과정에서 한 문장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절되는 벡터값의 조절량을 **학습률**이라 한다.

➡ 예를 들어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두 벡터 간 거리가 적절히 좁혀지도록 벡터값을 조정해야 한다. 이때 한 번에 벡터값을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학습률'인 거다.

2) 학습률은 학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조금씩 최적값에 다가가게끔 학습률을 작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학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벡터값이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학습 속도도 그만큼 느려진다.

3) 그래서 규칙에 따라 학습률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학습 결과를 얻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 학습률을 조정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학습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가리키겠다.

➡ 세 번째 문제 <보기>를 보면, 학습률을 너무 크게 해도 최적의 벡터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이렇게 모든 학습을 마치면, 이를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 학습 과정에 의해 각 단어의 벡터값이 '최적의 벡터값'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곧 각 벡터에 정보가 충분히 담겼다는 뜻이다. 그래서야 비로소 텍스트 마이닝(→ 각 단어로부터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다.

[18~21] 현대소설

「판문점」 이호철

작품 평가

소통과 화해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성이 있는 작품이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난, 남과 북의 기자가 벌이는 논쟁은 남북의 이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대화체의 서술, 이념 논쟁 등으로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남북의 소통과 화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며 읽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진수는 언론사 기자 자격으로 남북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에 가서 북한 기자단과 조우한다.

“누님 나오셨소? 우리 누님 나오셨군. 오랜만이외다. 어떻게, **장산** [→ 상대가 하는 일을 장난스럽게 표현한 말이었다.] 잘 되우?” [→ 남한의 기자가 북한의 여성 기자에게 한 말이다.]

쌍쌍 바람이 이는 듯이 휘익 들어와, 허영계 살이 찌고 굵은 검은 테 안경을 낀 사람 하나가 북쪽에서 나온 서른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조금 덕성스럽게 펴퍼짐하게 생긴 여기자에게 이렇게 기차 바퀴 지나가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 남측의 '안경을 낀' 기자가 북측 여성 기자에게 '우리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이 두 기자는 전에도 판문점에 와 본 적이 있어서 서로 인면이 있는 사이인 듯하다. 거침없는 행동과 큰 목소리 등으로 보아 남자는 활발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이편** [→ 남한] 여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붉은 완장** [→ 북한에서 온 사람임을 알려 준다.]을 차고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이 감기게 웃으면서 반색 (= 매우 반가워함. 또는 그런 기색)을 했다.

➡ 이 작품이 창작된 1960년대는 남한 여성들이 일상에서 치마저고리를 많이 입었던 시기이다. 그래서 서술자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이편 여자인 줄 알'었다고 한 것이다. 당시 북한에서는 국민들에게 노동하기에 편한 옷을 입을 것을 장려했다고 한다.

“어이구, 여전하시구려. 노동자 농민들 피땀을 빨아서 피둥피둥해 지셨군. 더 뻘뻘해지구.”

➡ 북한 기자의 말이다. '노동자 농민들 피땀을 빨'었다는 말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말일 것인데, 여기에서는 남한 기자를 대상으로 한 농담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악수를 청하였다.

➡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태도는 적대적이지 않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도, 북한 측 기자의 말에 농담의 성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허, 이거 왜 이래. 만나자마자 또 **공세문** [→ '공격하는 태세면', 공세는 상대측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격을 말한다.] 곤란한데, 장산 좀 뵈다 하구 우선 인사나 하고 봅시다래.”

➡ 이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인사부터 나누자는 말이다. 남한과 북한의 기자들이 만나면 서로 상대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 공격을 하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농담을 건네고 반갑게 인사하는 태도에서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친밀하게 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손을 잡으면서 안경잡이[-> '안경을 낀' 남한 기자]가 말했다.

“공센 무슨 공세라고 그래. 공세 혼살이 났는지 원, 지레 벌벌 떨기 부터 하니 지은 죄가 단단히 있나 보군.”

▶ 북한 기자의 대답이다. 자신이 하는 말을 ‘공세’라고 하면서 ‘지레 벌벌’ 떠는 것을 보니, 쟁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아마 저번의 만남에서 남한 기자가 북한 기자한테 호되게 공격을 당한 모양인데, 이를 환기하는 농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위 사람들은 히죽히죽 웃었다. 외국 기자들도 그 오고 가는 표정 만으로도 짐작이 가는 듯 피식피식 웃었다.

“우리 매부께서도 안녕하시구, 조카아이들도 다아 잘 있구요? 참, 시아버지 모시기 고생되지 않소? 무척 고생이 될 텐데. 난 누님 고생을 생각하문 밤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수[-> 과장된 표현].”

▶ 남한 기자가 북한 기자에게 한 말이다. 상대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만큼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인 모양이다. 북한 기자는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처지인 듯하다. 북한 기자의 남편을 ‘매부’, 아이들을 ‘조카아이들’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양 굴고 있다.

▶ ‘누님 고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기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고 힘든 면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표면적으로는 남한 기자가 북한 기자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한 기자는 ‘고생’이라는 말을 통해 북한 기자가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던지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로 보더라도, 그 정도는 농담 수준에서 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안경잡이가 또 말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아 냈다.

▶ 북한 기자[-> 치마저고리를 입은]와 남한 기자[-> 안경을 낀]는 상대 체제에 대한 은근한 공격을 농담 투의 말과 친근한 태도로 전달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에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당신은 왜 그렇게 허풍이 심하오? 배운 건 허풍만 배웠소?”

조금 전의 그 땅딸막한 사람[-> 아무래도 북한 기자겠다.]이 그 사이로 비집고 끼어들었다.

▶ 두 기자 사이의 대화에 ‘주위 사람들’과 ‘외국 기자들’도 웃고 있는 상황에서, ‘땅딸막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고 있다. 그는 안경을 낀 기자가 하는 농담 투의 말에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다.

“그래, 난 허풍만 배웠다. 당신은 실속만 차려서 그렇게 쪼끄매졌군. 딱하다, 딱해. 이런 젠장, 누님하고 마음대로 인사도 못 하겠군.”

▶ 안경을 낀 기자가 농담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이편에서 간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자, 그 땅딸막한 사람도 조금 쓰겁게[-> ‘쓰개’의 사투리] 웃으면서 말했다.

“영 안 통하는군. 아주 썩어 문드러졌군. 정말 딱하오.”

▶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안경 낀 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땅딸막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주 썩어 문드러진 것’이 ‘딱하’다는 말로 공격을 한다.

▶ ‘썩어 문드러졌군’이라는 말은 남한 사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인식을 담은 말일 텐데, ‘허풍’을 하는 것을 두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허풍과 같은 실속 없는 말들을 배척하는 북한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정말 딱하우. 이런 것이 왁 유머라는 거야. 유머라는 말 배워 줘? 모르지? 거기[-> 북한]선 모를 거야. 설명해 줘?”

▶ 딱하다는 상대의 말을 받아서 대꾸하고 있다. 유머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모를 것이라는 말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예들려 지적한 것이겠다.

마침 안[-> 회담장 안]에서 마악 회담이 시작되고 있어, 잠시 조용했다.

진수는 창턱에 두 팔을 걸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 주인공 진수의 등장이다. [판문점]이 처음인 진수가 회담장 안을 들여다보 있다는 말이겠다.

“초면이신 것 같은데, 처음 나오셨지요? 안녕하세요?”

등 뒤에 상냥스러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뺨긋 웃는 낮빛이다. 눈알이 투명하게 섧노랗고 얼굴이 납작하고 기미가 끼고 그런대로 깜찍하게 생겨 있었다. 남색 원피스에 붉은 완장을 찼다.[-> 남색 원피스를 입은 북한 측 여성 기자가 진수에게 말을 건 거다.] 예사 처녀가 예사 총각에게 흔히 하듯, 수줍음이 어린 웃음을 띠었다.[-> 진수의 시각에서 말을 건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야, 요것 봐라.[-> 진수가 상대방을 당돌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고 진수는 생각하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받았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 진수와 ‘남색 원피스’를 입은 북한 측 여성 기자는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안경을 낀 남한 기자가 ‘땅딸막한’ 북한 기자에게 유머 섞인 말로 맹공세를 펼치는 소리가 둘에게도 들린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참, 저런 사람[-> 안경을 낀 남한 기자를 말한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그녀가 먼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말을 꺼낸 후 대화를 이어 나간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물음은 체제와 이념에 대한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그녀의 의도가 담긴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녀[-> 남색 원피스를 입은 북한 측 여성 기자]가 미간을 조금 찡그리면서 물었다.

▶ 미간을 찡그렸다는 것에서 ‘그녀’가 ‘저런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진수에게 재차 묻고 있다.]

“글쎄, 사람 재미있지 않소.”

진수는 그녀를 건너다보며 또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녀도 조금 웃는 듯하더니 일순 싸악 웃음이 벗겨지며 말했다.[-> 진수가 웃으니 따라서 웃는 듯했으나 곧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덕지덕지 껴붙었어. 그게 뭐냐 하면 실속 없이 곡예사 같은 몸짓만. 저런 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틀테면 타락의 징조야요. 이력저력 와랑와랑한 소음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 솔직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녀는 ‘저런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의 징조라며 진수를 공격하고 있다. 본질을 가리는 것이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자신이 속한 북한 사회의 정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확신 어린 말투를 통해 그녀가 자신이 가진 이념이 옳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법 지껄이는데.’

진수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곧장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렇지만 말요, 곡예사 같은 몸짓, 타락의 징조 운운하는데, 그것이 벌써 당신 머릿속의 어느 함정을 뜻하는 거죠. 당신들은 어떤 개개의 양상을 객관적인 큰 기준과의 관련 속에서만 포착하지만, 우리네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저런 것이 비록 당신 말대로 속임수라고 쳐도 속임수치고는 즐겁고 순진한 것이라 그런 말이지요. 타

락의 징조라는 것도 명확한 개념으로 간단히 처리될 성질은 아니지요. 어떤 분위기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러서 익어 터질 때, 이룰테면 타락의 징조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포착하면 피상적으로 명료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건 무리지요. 그런 방법은 유형을 가르치기만 하는 데는 필요해도, 어떤 경우의 섬세한 진실은 포착 못 해요. 감은 더운 물에 넣어야 뚝은맛이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 데우면 껍질이 벗겨지고 물큰물큰해지지요. 요컨대 타락의 징조라는 것도 당사자의 경우에선 적당히 감미롭고 졸음이 오듯이 고소하고 팔다리를 주욱 펴고 있는 것같이 그래요.”

➡ 그녀의 비판에 대한 진수의 반박이다. 진수는 그녀에게 ‘당신들은’ ‘객관적인 큰 기준과의 관련’에만 매달린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체제의 이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보여 준 언행은 ‘속임수치고는 즐겁고 순진한 것’, 즉 악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 진수는 ‘타락의 징조’라는 그녀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표현이나 판단이 ‘머릿속의 어느 함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그녀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한 것들, 가령 악의 없는 속임수나 허풍 같은 것들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타락의 징조’에 있는 개인은 편안함을 느낀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녀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체제나 사회의 경직성을 풀어 주는 역할도 하니,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건 비겁한 짓이야요. 그런 썩은 개인의 경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감은 익어서 먹으면 될 뿐이야요. 익는 과정을 운운하는 건 쓸데없는 사변이지요. 어떤 큰 가능성에 대한 큰 지향이 있어야 해요.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포착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찌뿌드드하게 졸음이 오는 감미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사변에 매달리고 섬세한 경우에 매달리고 그러면 아무 것도 못 해요. 큰 결론만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정곡이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않으세요? 참, 저 서울은 어때요?”

➡ 진수의 말에 대해 그녀는 ‘썩은 개인’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라며, ‘어떤 큰 가능성에 대한 큰 지향’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서울이 어떡하냐고 묻는다.

진수는 그녀의 현실 운운하는 말을 받으려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탄소리에 멈칫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문젠[→ 타락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제가꿈 얻으면 되잖아요? 제가 옳아요.[→ 자신의 신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얘기도 효율적으로 속도 있게 합시다. 서울은 어때요?”

“.....”[→ 진수의 침묵]

➡ 진수가 침묵하는 까닭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어처구니없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응수할 만한 말을 찾으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네? 어때요?”

“평양은 어때요?”[→ 진수가 그녀에게 묻은 말이다.]

➡ 앞서 ‘그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 놓고, 진수의 말에서 공격할 만한 거리를 찾아 공격을 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진수가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여 그럴 기회를 차단한 셈이겠다.

“근사해요. 아주 굉장해요.”

“서울두 근사하죠. 아주 굉장하구.”[→ 상대방의 답변을 흉내 내고 있다.]

➡ 평양에 대해 ‘근사’하고 ‘아주 굉장’하다는 그녀의 말은, 자신이 속한 체제

를 옹호하고 자랑하는 말이다. 진수는 그런 그녀의 대답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그녀가 피 하고 웃자, 진수도 피 하고 웃었다. 다음 순간 둘이 다 킁킁대며 웃었다.

➡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진수의 행동에 그녀가 웃고, 진수도 웃는다. ‘피’ 하고 시작된 웃음이 ‘킁킁대며’로 좀 더 커졌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조금은 커진 것으로 봐도 되겠다.

이 감

[28~30] 현대시

(가) 「풀리는 한강 가에서」 서정주

작품 평가

읽기에 아주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 계절이 변화하고, 얼음이 녹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제 1연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 얼었던 강물이 풀린다는 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얘기겠다. 그런데 화자는 봄을 반기는 게 아니라,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서러움과 기쁨 때문에 강물이 풀린다고 한다. 찾아온 봄이, 화자에게 삶의 애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촉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 2연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선달(=음력 12월)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어름짱(=얼음장)[→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 ▶ 화자는 한겨울의 '기러기'처럼, '하늘의 어름짱'을 깨치며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다고 말한다. '했더니'라고 한 걸 보니 그 결심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 같다. 하늘의 얼음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제2연의 강물이 풀리는 봄의 상황과 대비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다.

제 3연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게 주는가

- ▶ '햇빛'과 '물결'은 '어름짱'과는 반대되는 느낌으로, 화자의 심경이나 생각의 변화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제 4연

저 멈둘레(=민들레)나 썩니풀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 ▶ 제2연의 '기러기'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제4연의 '멈둘레'나 '썩니풀'은 땅에 속한 존재다. 두 공간의 대비에 주목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다. 화자는 삶의 애환 및 삶의 각종 감정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겨울 기러기처럼 견뎌야 할 시련과 고통을 인고의 자세로 감내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봄이 찾아와 생명[→ 지금은 어리지만 곧 삶의 '서름'과 '기쁨'을 겪게 될 존재]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그런 감정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가야 하나 싶은 거다.
- ▶ '또 한 번'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이전에도 삶의 애환을 겪은 존재들을 바라본 적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그러한 애환을 겪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연

황토 언덕[→ 척박하고 고단한 삶]

꽃상여[→ 죽음]

떼과부의 무리들[→ 죽음 뒤에 남겨진,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여기 서서 또 한 번 더 바라보라(=바라보라) 함인가

- ▶ 화자가 제4연에서 본 것[→ 멈둘레나 썩니풀 같은 것들]이 피어나는 생명들이라면, 제5연에서는 척박함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견뎌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제1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삶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서러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상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애환들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 ▶ 제5연은 4음보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행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황토 언덕', '꽃상여', '떼과부의 무리들'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각각의 시어가 환기하는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 어린 시선을 보여 준다.

제 6연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 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 제6연을 반복함으로써 시의 구조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됐던 '서름', '기쁨'의 내용과 그것을 화자가 '또 한 번' 보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제6연에 와서는 삶의 애환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 이 모든 기쁨과 슬픔을 또 다시 겪으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